

# 문학비평의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허 창 운

(독문과 교수)

## 1. 서 론

오늘날 우리의 문학창작계는 소위 <민중·민족문학>을 통해서 지난날의 현실안주적 내지 현실영합적 자세에서 벗어나 철저한 자기반성을 도모함으로써 실천적 차원에서 과감히 자기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예학적 차원이나 문학교육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더욱이 근간에 참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아무튼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은 투철한 비판적 사고에 입각한 실천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과 실천이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의 제도적 폐습은 아직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각 분야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 산적해 있는 그와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위상들의 자리매김을 차근차근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의 일차적 목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문예학이나 문학비평의 이론적 차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문학비평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려는 움직임은 “민중적” 진영, 특히 그 중에서도 마르크시즘적 계열이나 학생운동권 세력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그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그다지 높지 않다.

우리 주변에 평론가나 비평가들의 숫자는 많지만 정작 폭넓게 수행되어야 할 비평이론에 관한 전문적이고도 원론적인 천착은 유보된 채, 대개는 현존작가나 당대의 작품들에 국한된 단편적인 평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게다가 문학비평 작업들은 주로 인쇄저널이나 영상매체를 통한 신간서적들의 서평이나 현존작가들의 작품세계에 관한 간략한 해설 내지 전기주의적 작가론에 치우쳐 있어서, 본격적으로 비판적인 이론화작업이나 가치평가적인 기초과제를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말하자면 문학비평 작업이 아직도 문학 일반에 대한 학문적·과학적 필요성으로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한 반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 지난 60년대에 이러한 제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겪

\* 본 논문은 1989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에 의한 것임.

으면서 서독의 문예학계가 펼쳤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문예지평을 조명해봄으로써 문학비평의 이론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2. 문예학과 문학비평의 위상

문예학과 문학비평을 성격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로 분리시키는 현상은 그것의 연원이 어디에 있건 특별히 한국에만 국한되는 사정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서독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sup>

일찍이 독일에서는 19세기를 통해 시민적 문학전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문예학>과 <문학비평>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우세해졌다. 이에 따라 문학의 <가치평가><sup>2)</sup>와 <문학비평>을 구분하는 것도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문학의 가치평가는 문예학의 한 특수한 이론적 물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문학비평은 저널리즘적인 서평의 과제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실질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의심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문예학의 골격이 형성되었던 18세기 말경에 이미 문학사, 문학이론, 문학비평이 변증법적 단위로서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비평에서 핵심범주인 <비판>은 그때까지만 해도 문학연구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분석이나 해석과 함께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3월혁명이후 19세기를 지나는 동안 점진적으로 부르주아계급이 득세하여 문화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비판이라는 범주는 자꾸만 일종의 거추장스러운 부담처럼 경원시되어 그들의 문화생활에서 백안시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가치평가의 문제는 문예학(문학사, 문학이론)과 문학비평이 긴밀히 하나로 통일체를 형성했던 단계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등장하게

1) 예컨대 프랑스에서도 최근에는 학문에서 비판을, 비판에서 학문성을 떼어내는 경향 말하자면, 문예활동영역에서 문예학과 문학비평이라는 두개의 독립영역이 별개의 분야로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문예비평(literary criticism)의 형태로 언제나 비교적 문제시되지 않았던, 학문과 비평의 연합(union)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확연하게 모호해져버린 이러한 실재를 철저히 문학비평 이론에 의하여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2) 오늘날 이 개념은 생산적 활동이나 수용적 활동의 대상인 텍스트가 미적 전유시에는 언제나 특정 관심과 욕구에 관련되고 또 그에 따라 측정되기 때문에 모든 미학적·예술적 관계들의 기본범주가 된다. 따라서 가치는 의미관계로 보아야 하고 또 이 관계는 이분법적인 성격의, 역사적으로 결정된 가치범주들(예컨대 <유익한-해악한>, <아름다운-미운>, <비극적-희극적>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역시 이들 내에서는 또한 많은 등급의 차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학문적인 과제로서 <가치평가>의 문제에 필연적으로 가치평가 주체의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입장들이 개입하게 되면, <가치의 문제>는 미학과 문학이론에서 논란이 분분한 문제거리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하간에 이 문제는 자칭 객관적이라고 하는 몇몇 노선들(예컨대 <신비평>이나 <구조주의> 등)에 의해서 간파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가치평가>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비판적 관점과 결부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의 가치개념은 가치 형이상학적으로나 가치 실증주의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문학작품은 으레 <가치담지자>로 간주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된 것이다.<sup>3)</sup> 그 원인으로서서는 무엇보다도 문학적 公衆의 해체와 정신과학적 역사주의, 보수주의, 실증주의의 확산 및 이것들이 지니고 있었던 계몽주의의 비판적 전통들에 대한 불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로써 문예학은 민족적 문화자산들을 보존하는 학문으로 변신해 버렸고, 문학비평은 도서시장의 한 부속물이 되었다. 이처럼 독일학계에서 이른바 가치사상의 부상은 결국 비판사상과의 대립을 낳았다. 그리하여 20년대의 정신사적 문예학이 갖는 형이상학적 가치어들은 그후 나치즘에서 국수적·민족주의적 가치평가의 선언으로 거침없이 전이될 수 있었고 이로써 비판개념은 절멸하기에 이르렀다. 1945년 이후에도 <비판>과 독어독문학과의 관계는 여전히 손상된 채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대학 운영과 <문화산업>으로서의 대중매체는 무비판적인 학문과 비과학적인 비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sup>4)</sup>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마르크시즘적 진영에서 문예학과 문학비평은 언제나 사회와 관련된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과제로서 수행되고 또 장려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예학적 비판에 호성이 그곳에서는 자칫하면 독단으로 경직될 위험이 상존한다. 물론 오늘날 헝가리,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권에서는 정치·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고, 덩달아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대거 탈주한데 뒤이은 민주화 시위운동들은 급기야 일련의 공산당 서기장들의 실각을 몰고 왔다. 이와 더불어 동독에서 새로 들어선 '위기관리' 정권이 펼쳐 보일 새로운 정권담당구상은 철옹성같은 국경의 문호를 활짝 여는 데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머지않아 엄청난 변혁의 움직임이 그곳에서도 일어날 조짐들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민주화의 맥박이 동구진영에서도 뜨겁게 고동치고는 있지만, 이 여파가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시즘의 이론에 의해서도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호작용관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과 서, 회의와 독단,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등 상반되는 범주들 간의 긴장영역에서 문예학과 문학비평의 문제들은 오늘날 격변하는 상황과 더불어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현 시점에서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스러운 문제해결의 방향이라도 제시하는 일은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비판>의 차원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비판개념이 현대문예학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하한 이론적 틀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는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다.<sup>5)</sup>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문예학의 이론에 있어서 사실상 방법의 다양성은 마치 관용의 미덕인

3) 허창운 편저: 현대문예학의 이해,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9, p. 370f.

4) N. Mecklenburg: Literarische Wertung, Tübingen 1977, p. 30 참조.

5) N. Mecklenburg: Kritisches Interpretieren, München 1972, p. 9 참조.

양 받아들여졌고, 또 이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렇듯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역시 현대사회에서 문예학 이론의 내적 조직과 과제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문예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한편으로 새로운 <문예이론>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과학의 구체적 문제들을 고려한 바람직한 <학문이론>이 필요할 것이다.<sup>6)</sup>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문예학과 문학비평에서 그 대상뿐 아니라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적 차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우리의 문예학도 역시 <해방적 인식관심>에 의해 주도되는 <비판적 문예학>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학문적 여건에서는 아직도 그 이행 어부가 어렵지만 또 그만큼 절박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한국의 외국문학도로서 교육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주로 텍스트의 분석과 이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 대개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번역작업에 주석과 비평이 덧붙여질 경우 비로소 좀더 가까이 그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분석행위와 해석행위의 기반이 되는 <설명>과 <이해>의 처리가 이 경우 <비평>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합을 이룰 수 있다면, 문예학적 비판작업은 우리가 문학텍스트를 수용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추적인 학문적 작업범주로 부상하게 된다. 따라서 문학의 가치평가와 비평행위를 주도하는 비평은 우리들 외국문학도와도 무관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온당한 비평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다한 전제와 조건들이 수반되고 힘겨운 연마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외국문학도로서 해낼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자국문학의 글읽기를 비판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외국문학과의 상관행위도 소극적인 번역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서 적극적인 비평차원으로 나아감으로써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배양을 바람직한 문학교육목표 중의 하나로 삼아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서독의 문예학자들은 지난 60년대 후반이래로 독어독문학의 문예학에 대한 역사적인 자기반성을 치열하게 전개함으로써 특히 문학비평과 문예학의 대립상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경주하였다. 이러한 과제가 세삼스러웠던 것은 문학비평과 문예학의 인위적 분열이 역사적 원천과 조건들에서 독립적으로 떨어져나와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선언되고 관철되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립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적인 편견들과 상투어들을 잘 알고 있다. 문학비평은 문예학으로부터 당대문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박탈해버렸고, 반대로 문예학은 문학비평을 단지 당면과제에만 한정된 주변적인 일상비평으로 치부해버렸음을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6) 같은 책,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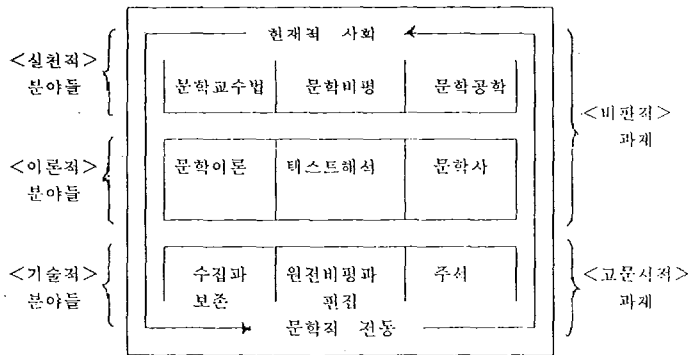
7) 현대문예학의 이해, p.373f.

가 독일적인 전통에서 볼 때 독일어 <Kritik>은 영미의 <criticism>이나 프랑스의 <critique>와는 달리 매우 협소하고 부정적인 共示義(=부가적인 의미 : Konnotation)들을 가진 개념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것의 의미가 원상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컨대 문학에 관한 학문적 활동에 있어서 문학비평과 문예학으로 양분화되어버린 독일적인 변질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의 재활동과 기능들이 상호 교체되거나 상호 보완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문예저널리즘에서 활약하는 문학교수들이 많다는 것은 역시 비판과 학문의 결합이 소망스럽다는 사실에 대한 한 징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더 근원적이면서 조직적인 구상아래 철저한 검토와 포괄적인 문제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sup>8)</sup>

서독에서는 이미 70년대 초반에 메클렌부르크/뮐러 Mecklenburg/Müller에 의해 이러한 쟁점들이 반성적으로 수렴되면서 문예학의 체계적 분류가 다음과 같은 모델을 통해서 시도된 바 있다.

문예학의 체계적 구성과 그 실천연관



“이 도식은 문예학의 체계적 구성을 그 실천연관과 관련해서 스케치한 것이다. (...)문예학은 <문학>이라는 <문화 시스템>을 역사적 분석적으로 탐구하여 이론적 비판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실천적인 방향성들을 문학에 되돌려주는 양상으로 문화 시스템에 귀속되어 있다. 문예학은 여타 정선과학처럼 순수한 진술체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진술에서 행동지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장부류들로 이루어지고, 관심에 의해서 주도되는 과정적 목적연관을 나타낸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실천연관>과 <행동정향>은 일차적으로 문예학이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관찰하고 조종함으로써 <문학사회>로서의 사회의 욕구에 부

8) Gebhardt, Paul: "Literarische Kritik," in: Erkenntnis der Literatur, Hg. von Dietrich Harth/ P. Gebhardt, Stuttgart 1982, p.92.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문예학은 사회적 시스템과 그 〈하위시스템〉인 문학 간을, 또 현재의 의사소통적 욕구들과 문학적 전통의 의사소통적 욕구들 간을 매개한다. 문예학은 이 복잡한 과제를 오직 분업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예학적 작업영역들을 조직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게 된다.

좁은 의미에서의 문헌학의 〈기술적〉 분야들, 즉 텍스트들의 수집과 보존, 원전비평과 편집 및 주석은 문예학의 〈고문서적〉 과제를 〈비판적〉 과제들의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로서 수행한다. 그리고 〈비판적〉 과제들이란 문학 그 자체로서의 체계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적 전통을 (좁은 의미에서 이론적인) 분석적, 해석학적, 역사기술적 처리방식들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또 문학교수법, 문학비평, 문학공학(문학생산)의 〈실천적〉 분야들을 거쳐서 당면적으로 매개하는 작업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구상을 놓고 볼 때 문학비평은 문예학에서 실천적 실용성을 추구하는 한 하위영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학비평은 이러한 체계내에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여겨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학기론/시학과 문학비평을 포괄하는 개념인 〈criticism〉을 우리말의 〈문학비평〉과 동치시킴으로써 이러한 우리말 표현 속에 문학기론적인 표상이나 내용까지도 외연적으로나 내포적으로 포괄하려는 건강부회적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개념상의 혼란은 생각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만약 〈문학비평〉이라는 개념이 영미계통의 〈criticism〉과 동일시될 수 없다면, 우리는 차체에 위의 도식에서처럼 〈문예학〉이란 상위개념 속에 문학비평을 하위개념으로 포함시키는 철저한 분화작업을 추진해서 우리 문단에 확산되어 있는 개념사용의 혼돈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문학비평 활동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고전주의적 관념론적 평가기준들에 의거하여 시대착오적으로 합리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또 그때그때 주어진 여건에 따라 관련자들의 합의를 유도해낼 수 있는 설득력을 간주관적으로 확보하는 일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비평〉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변증법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꾸준히 극복되어질 운명에 놓여있고 실재없는 자기 지양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세계에 원대한 〈해방〉의 꿈을 펼치는 문학적 추동력임을 이제는 우리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sup>10)</sup>

### 3. 문학비평의 조건과 가능성

#### 3.1. 〈비판〉개념과 문학비평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문학비평과 문예학이 서로 혼동되거나 확연히 구분되지 못하는

9) N. Mecklenburg/Harro Müller: Erkenntnisinteresse und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Berlin/Köln/Mainz 1974, p.104f.

10) 현대문예학의 이해, p.377.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문학비평은 어디까지나 문학에 관한 포괄적인 학문영역인 문예학 안에 위치하는 문예학의 한 실천적·가치평가적 활동영역이자, 결코 학문성과 무관할 수 없는 전문분야로서의 위상에 자리매김되어야 할 분야이다. 말하자면 문학이론이나 문학사에 관한 제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석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작가와 독자사이에 일종의 가교를 놓아주는 일을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문학비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시되는 문학비평의 과제는 바로 <비판><sup>11)</sup>이라고 하는 행위일 것이다. <비판>은 어떻게 가능하고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이 개념은 분석작업과 해석작업의 변증법적 합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분석이 주로 문학작품의 구조적 형성물에 국한된 설명행위라면, 해석은 그것이 자신과는 다른 것, 즉 현실과 관련된 이해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석자의 현재적 입지에서 해당 문학작품이 제시할 수 있는 의미의 차원이 이야기된다면, 즉 해석자의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비평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때 우리는 그것을 <비판>이라고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세 부류의 행위는 실제로 문학비평작업을 할 때는 서로 단절된 채 따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삼위일체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다만 우리는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서로 구분할 뿐이다.<sup>12)</sup>

### 3.2. 변증법적 기능으로서의 <낯설게하기>

대체로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문학비평>은 가치평가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가치평가는 해석자의 가치체험에 의존하고 작품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치담지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작품이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제기될 때 <가치평가>작업은 온통 가치언어의 활동공간으로 변화한다.<sup>13)</sup> 문예학의 가

11) 이희승, 국어대사전(1981)의 <批判>항목②를 보면 “인물, 행위, 판단, 학설, 작품 등의 가치, 능력, 정당성, 타당성 등을 검토, 평가함”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批評>①항목에는 “사물의 선악, 시비(是非), 미추(美醜)를 평가하여 논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전적 어의설명에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비판>은 무엇을 논하여 판단하는 행위로 그리고 <비평>은 무엇을 평가하여 논하는 일로서 정의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이끌어 간다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여겨진다. 따라서 나는 <문학비평>에는 <문학적 비판>이 작업의 핵심범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이 배제된 문학비평은 공허하며, 또 <문학적>이지 않은 <비판>은 자칫하면 맹목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학비평>과 <문학적 비판>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어도 무방하리라 본다.

12) 현대문예학의 이해, p.370 참조.

13) 독일에서 문예학적 가치평가 이론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학문내재적으로 보아 딜타이의 저술과 연관된 정신과학의 자기반성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로 역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 사람들은 발켈(Walzel, O., Gehalt und Gestalt im Kunstwerk des Dichters, Potsdam 1923)과 에어마팅어(Ermatinger, E., Das dichterische Kunstwerk, Leipzig 1923<sup>2</sup>)이다. 가치평가론 이미 특수한 문제로 분리시킨 발켈에 비해 에어마팅어는 문예학을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그 뒤로 베리거(Beriger, L., Die literarische Wertung, Halle 1938), 부

치평가론은 실로 가치평가가 없으면 문예학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은 하면서도 실제론 해석을 할 때는 문학에 대해 비판하는 일을 절제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배적인 규범시학의 독단론에 반대하고 역사의식의 각성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계몽적인 자극을 준 이른바 “모든 것에 감정을 이입하라”<sup>14)</sup>는 정언명령이 본의 아니게 많은 그릇된 해석학적 귀결들을 산출한 바 있다. 문예학은 사랑과 존경과 직접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어야 한다<sup>15)</sup>고 보는 비합리주의적 예술수용자세는 신앙적인 경건함으로서 비판적인 분석과는 대립된다. 신비주의적 예술애호가인 바켄로더가 감정이야말로 진리의 진정한 증인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문예학적 경건주의는 감정의 기준을 학문성의 기준으로 설명했다. 비합리적인 감정이입론은 창작성, 감정이입, 시대초월성, 제창조, 공동체험, 환상, 예술향수 등의 주도개념들과 함께 “규범미학이라는 괴물”로 발전했던 것이다.<sup>16)</sup>

문예학 분야에서 딜타이를 따르는 수많은 후예들이 딜타이의 해석학적 성찰들을 왜곡시킨 이후로 <예술체험>이라는 범주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특정한 예술시대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관대하게 온존될 수는 없다. 작품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비판이 필요한데, 체험은 작품의 객관성을 주관주의적으로 해체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자신을 원천적이고 순수한 체험이라고 이해하는 문학관찰에는 대체로 허위의식의 계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순수하게 첫번개의 인상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혼합물이며 동시에 극도로 다양한 영향들과 상황들의 결과인 것이다.<sup>17)</sup>

비판을 하게 되면 예술에 대해 경건하게 예배하거나 예술을 향수할 수 없게 된다고 비난하면서 예술체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로 비판을 그렇게 보는 점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적 입장이든, 적절한 <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미식가적’인 입장이든, 비판은 예술을 향수하고 경배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이입을 통해 예술을 체험하여 감동을 받는 식의 태도는 단순히 예술을 잘못 받

즈(Wutz, H., *Zur Theorie der literarischen Wertung*, Tübingen 1957), 뮐러-자이델(Müller-Seidel, W., *Probleme der literarischen Wertung*, Stuttgart 1965)에 이르기까지는 전통적인 성향의 저술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이후의 저작들은 오히려 이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후퇴했다는 감마저 있다. 그러다가 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 성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 저서가 바로 슐테-자세의 <문학적 가치평가 Literarische Wertung>(1971)와 메클렌부르크의 <비판적 해석 Kritisches Interpretieren: 가치평가 이론에 관한 고찰>로서 특히 슐테-자세의 저서가 1976년에 확대·증보판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 본 논문 3장의 전체적 논지는 N. Mecklenburg: *Kritisches Interpretieren*, pp.44-60 부분의 서술에 의거해서 요약된 것이다.

14) Herder: *Sämtliche Werke*, Bd. 5, p.503.

15) Staiger: *Die Kunst der Interpretation*, p.13.

16) Benjamin: “*Literaturgeschichte und Literaturwissenschaft*”. p.453.

17) F. Schlegel: *Kritische Ausgabe*, Bd., p.101.



아들이는 형식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문예학의 실천 그 자체까지도 잘못 규정한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자세는 무비판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반비판적이까지 한 해석처리방식을 산출해 낸다. 따라서 비판은 <낯설게하기>라는 행위가 내포된 개념이며, 이 점에서 감정이입론과는 대립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

“인문과학의 대상들도 모든 다른 과학의 대상들처럼 밖으로부터 관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입’이라는 것 대신에 브레히트의 <낯설게하기>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어야 한다. 브레히트 자신은 이 개념을 연극이론에서 사용했지만, 나는 그 개념이 역사과학에서나 특히 <미>를 연구하는 학문에서 훨씬 더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본다. [...] 우리는 역사적인 현상들과 미적 현상들을 관찰할 때 해석과 설명을 요하는 어떤 낯선 것을 보듯이 관찰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한다. 우리는 체험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마땅히 인식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sup>18)</sup>

근대예술에서 파생된 이 <낯설게하기>라는 범주는 전통적인 예술수용과 감정이입론을 옹호하는 문예학적 입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반명제이다. <낯설게하기>라는 개념은 체험이나 감동, 당황함이나 사로잡힘, 마력이나 마법 또는 감명 따위의 범주들 일체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주들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입장을 기술할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찌기 니체는 체험이나 감동 따위의 범주들을 교양 시민계급이 은닉하고 있는 마취적인 <도취감>일 뿐이라고 회화시킴으로써 거기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폭로한 바 있다.<sup>19)</sup>

어쨌든 <낯설게하기>는 비판적인 처리방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연구자는 <낯설게하기>를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연구대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 대상이 연구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거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거리를 두는 계기가 없다면 <미적 경험>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보수적 해석학의 진영에서는 미적 판단이 예술작품을 낯설게 함으로써 그 예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권위를 빼앗게 된다고 안타까워 하지만<sup>20)</sup>, 그들이 안타까워 하는 바로 그 <낯설게하기>가 비판의 가능성을 여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해석학 이론은 <낯설게하기>를 수동적인 전통수용방식인 ‘들어서 아는 이성’에 반하는 해석처리방식의 원천으로서 이해한다. 이는 작품을 이해하여 제것으로 만드는 일과 그것에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는 일을 변증법적으로 매개하고자 하는 해석처리방식인 것이다.<sup>21)</sup>

### 3.3. <분석적 설명>과 <해석학적 이해>의 함의로서의 <비판적 해석>

통칭해서 과학적 방법은 즉물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낯설게 하는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18) H. Hultberg: Semantisk litteraturbetragtning, Kopenhagen 1966, p. 15.

19) N. Mecklenburg: Kritisches Interpretieren, p. 46ff.

20) Gadamer: “Die Universalität des hermeneutischen Problems”, p. 216.

21) Apel: “Szientistik, Hermeneutik, Ideologiekritik”, p. 39ff.

그 방법이 미적 경험으로부터 주관적 계기들을 깡그리 제거한다면, 감흥적인 미적 형성물임과 동시에 말을 하는 텍스트인 예술작품은 단지 순수한 분석적인 인식대상으로 축소될 여지가 있다. 가령 수학적이거나 정보론적 미학에서처럼 텍스트를 수량화하여 추상적인 인식대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방법의 객관성을 추구할 경우, 자칫하면 무비판적인 객관주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물화시키는 계산은 주관주의적인 감정이입만큼이나 무비판적이다. 사실만을 기록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미적 판단도 내려질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구조 분석이 스스로 불가치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더라도 실제로는 결코 불가치적일 수가 없다. 물론 운율의 도식이나 서사적인 구성형식처럼 비교적 중립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구조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기술한다든가 분석하는 것은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언제나 부분적인 의미만을 지닐 뿐,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채 모조리 그대로 남게”<sup>22)</sup>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불가치적인 해석은 실제로는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일 그런 해석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해석이 되고 말 것이다.

예술작품의 비평에서 <해석학적 이해>와 <분석적 설명>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미적 경험은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것으로서의 텍스트를 넘어서는 일종의 <반성>적 계기를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우선은 일단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후 언젠가라도 문학적 판단을 덧붙일 수가 있겠거니 하는 해석시도는 그릇된 시도일 것이다. 가치중립적인 인식과정과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추후에 구축될 입장표명이 서로 완벽하게는 분리될 수 없다.<sup>23)</sup> 왜냐하면 이미 그 이해행위 속에는 그것을 주도하는 가치평가와 관심이 항상 개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분석도 오직 분석의 전제나 결과 및 그 한계를 반성하는 비판적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반성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이해와 설명은 서로 수정·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과 반성을 철저히 분리시키게 되면, 비판이 저절로 지양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리는, 문예학자가 해석을 할 때에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치평가를 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식의 아주 편리한 구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가치평가적·비판적 주관주의 못지않은 분석적·해석적인 객관주의까지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할 때는 여하한 능동적 해석행위도 배제된 채 전적으로 작가의 의도에 굴복해야 한다(해석의 강제성)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일단 그 의미가 발견되고 나면 그것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어떤 것과 관련지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것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비판의 자유)고도 한다.<sup>24)</sup>

그러나 해석의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는 초석인 작가의 의도는——비록 비교적 명확하게

22) Adorno: Ästhetische Theorie, p. 515.

23) Bollnow: Die Methode der Geisteswissenschaften, p. 32f.

24) 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p. 142; 155ff.

파악될 수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언제나 대략적으로만 확정될 수 있을 뿐이며<sup>25)</sup>, 더욱이 문학텍스트의 의미가 작가의 의도와 단순히 동일시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해석과 비판의 관계는 그것들의 추상적인 분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항시 매개되어 있다. 반응을 보이는 글읽기인 <비판적 해석>은 이해의 추수행만을 위해 작품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조종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은 텍스트에 대해 정신적인 반작용을 가하는 것이다.<sup>26)</sup> 그것은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지칭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언가를 ‘덧붙인다’.<sup>27)</sup> 따라서 <비판적 해석>의 풍부한 반성은 작가가 자신을 이해했던 것보다 작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場)을 연다. 이와같은 <비판적 해석>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넘어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 자체도 이미 스스로를 넘어서서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과학에서 ‘이해한다’라는 말은 무비판적 수용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말 속에는 이론적인 파악행위로서의 비판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역시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sup>28)</sup> 따라서 해석은 언제나 이미 어떤 가치평가의 관점에서 주도되기 마련인데, 여기에 비판적 판단이 수반될 때 비로소 해석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며, 역으로 비판적 판단은 해석을 통하여 자신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해석은 모든 비판의 기초가 된다. 가장 훌륭한 비판은 바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비판적 해석>의 처리방식은 단지 의미해석적 추수행만으로 끝나버리는 심미적인 해석기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학비평의 처리방식에서는 텍스트 해석과 비판적 반성이 하나의 필연적인 통일체를 이룬다. 비판적 해석에 대한 객관성의 문제는 <주관적> 비판과 <객관적> 해석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실제 문학비평에서 나타나는 기술, 분석, 해석, 비판, 이론 등의 상호 협동을 통찰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분석적 <설명>과 해석적 <이해>를 서로 매개하려면, 변증법적·비판적 반성이 필요하다.<sup>29)</sup> 객관적 문학비평의 가능성은 이 세 요소의 융합을 토대로 형성된다.

### 3.4. 문학비평과 주관적 제 조건

#### 3.4.1. 자기비판과 간주관성

여기서 자기비판이란 작품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비판적 지평을 넘어서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방을 뜻한다. 그러나 해석이란 언제나 작품을 “순수하게 처음 만날” 때 나타나는

25) Leibfried: Kritische Wissenschaft vom Text, p.342.

26) F. Schlegel: Kritische Ausgabe, Bd. 2, p.101.

27) Seiffert: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stheorie, Bd. 2, p.131.

28) Bollnow: Die Methode der Geisteswissenschaften, p.31.

29) Apel: “Die Entfaltung der <sprachanalytischen> Philosophie um das Problem der <Geisteswissenschaften>”, p.251.

것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일면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사람들은 모든 해석이 “개인으로부터 나온다”고 우기기도 한다.<sup>30)</sup>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이해가 주관적인 전제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역사적으로 매개된 것이기도 한 이 주관적 전제들 역시 문제시해야 하는 과제는 회피하고 있다.<sup>31)</sup> ‘남아 있는 주관적 잔재’라는 말은 특정한 문학과 특정한 해석방식을 비판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오직 위장시킬 뿐이 아니냐는 의문은 근거있는 의혹이다. 개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들 주장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져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하치만 문학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제가 되는 이러한 주관적 조건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묻는 것은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타당한가를 비판적으로 묻는 것과는 구별된다. 규범적·심미적 영역에는 언제나 일종의 주관적 경험이 해체되지 않고 남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아 있는 잔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 즉 독단이나 주장 또는 착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부정하고 또 타당한 비판을 통해 지양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이제 문학비평 이론에서 제기되어야만 한다.<sup>32)</sup> 해석학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해석주체의 구성적인 의미를 인식비판적으로 통찰하는 것은 심리화시키는 주관성의 명제와는 구별된다. 비판의 주관성은 그 비판이 객관적일 수 있는 전제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텍스트와 비판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 주체도 역시 텍스트처럼 스스로 객관적인 힘들이 서로 만나는 교차점이다. 따라서 그 주체가 어떤 것을 파악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콘텍스트를 지닌다. 제대로 이해하자면, 비판의 주관성이라는 말은 곧 개인을 초월하는 역사적 경험과 관심——텍스트는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읽힌다——에서 출발하는 해석공동체의 간주관성을 뜻하는 말이다.

### 3.4.2. 비판과 관심

이해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의 관심에서 출발해서 그것과 관련을 맺는 것이라면, 비판은 인식과 관심의 변증법적 동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대상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 해석을 주도하는 관심이다. 이해하려는 사람이 그 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바로 그 대상은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은 문예학과 문학비평에서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충분히 논의되어 본 적이 없다.

특히 가치평가에 관한 문헌들에서는 어떤 진통적 기준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될 수 있

30) Staiger: Die Kunst der Interpretation, p. 32f.

31) Weimann: “New Criticism” und die Entwicklung bürgerlicher Literaturwissenschaft, p. 106f. (Anm. 7) 참조.

32) Adorno: Vorlesungen zur Ästhetik, p. 52.

33)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M. 1968, p. 234ff.

는가 하는 점과, 개방된 인식관심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있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 실천적·비판적 인식관심이——문예학은 이를 통해 사회의 해방적 관심과 연결된다——활발히 논의되고 있다.<sup>34)</sup> 물론 문예학과 문학비평이 계급투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바로 그 해방을 위해서는 실천과의 상대적인 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의 여부<sup>35)</sup>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관심은 인식을 주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오도할 수도 있다. 문학비평이 가차없이 사회의 대립현상들에만 매달린다면, 그 객관성은 당파들의 총애와 증오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비평이 사회의 대립현상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한다면 빈 껌테기가 되어 아무런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비판은 필연적으로 관심에 의해 규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실에 대해 예술이 지니는 심미적 거리는 공공연하게 무관심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학비평은 대상의 미적 자율성을 초월하지 않고, 바로 그 자율성을 통해서 대상의 진리요구가 그 대상의 고유한 역사적 입지와 맺는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해방적 관심을 지각하도록 요구받아 마땅한 것이다.

### 3.4.3. 영향사적 의식과 <비판>

해석자의 <입지구속성>이라는 말은 자신의 미적 경험이나 역사적 경험을 쉽게 고정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바람직스러운 해석은 문학텍스트에 몰두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해석학적 상황도 함께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더 잘 이해할 줄 알게 되고 자신의 개별성뿐 아니라 대상의 개별성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문제지평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입지가 갖는 위엄은 그런 입지로부터 조망될 수 있는 지평의 폭에서 드러난다. 입지를 의식한다는 말은 우리가 해석하는 텍스트에서 역사적 거리, 다시 말해서 텍스트가 현실에 대해 가지는 긴장관계를 의식한다는 뜻이다.<sup>36)</sup>

해석학은 해석자의 이런 의식을 가리켜 <영향사적 의식>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이 의식은 전통이란 것이 언제나 바로 현재 속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 속에 발을 딛고 서서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다.<sup>37)</sup> 전통에 대한 삶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해는 텍스트의 지배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이다.<sup>38)</sup> 인문과학들의 계몽적

34) Gansberg: "Zu einigen populären Vorurteilen gegen materialistische Literaturwissenschaft", p.30ff. 참조.

35) Ritter: "Die Aufgabe der Geisteswissenschaft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p.35f.

36)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p.290.

37) 같은 책, p.311.

38) 같은 책, p.295.

이고 해방적인 충동과는 현격한 거리를 두고 권위와 전통, 선입관 등을 복원시키려고 애쓰는 사이비 신학적인 해석학은<sup>39)</sup> <비판적 해석>에 행동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스스로도 영향사에 속하는 <이해>가 대상을 매개하는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지평융합”이라고 했다.<sup>40)</sup> 그러나 융합의 경우에는 비판적인 구도가——이 구도 속에 텍스트는 현재와 함께 놓여 있는 바——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내려진 판단들인 영향사의 권위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sup>41)</sup> 수동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를 지배적인 전통의 소산으로 파악한다면, 비판은 창조자와 대결하려는 피조물의 역할로 전락해버린다. 이해는 전통의 영원한 법칙들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칭찬받는 반면, 비판은 신성모독이 되고 만다. 이같은 관념론적이고 보수주의적인 고등해석학은 그것이 받을 딛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역사적 토대를 잃어버리기 쉽다. 수용사라는 것은 사회적 대립들과는 동떨어진 채 계속되는 전통사가 아니고, 이런 대립들에 연루된 오류와 폭력의 혼합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수용사는 지배적인 의견들의 파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문학적 명성과 문학적 신화, 전설, 가치평가 등 현재까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합당한 수용을 오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에 대한 계몽일 수 있는 “영향들의 비판적인 역사”<sup>42)</sup>를 요구한다.

작품이 현재와 관계하는 역사적 연관은 결코 순수하게 정신사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문화사적이고 사회사적인 측면을 지닌다. 문학적 경험지평의 변화들은 역사와 사회의 변화들에 상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들을 읽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평가와 작가의 역사적 관계들을 의식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다.<sup>43)</sup> 작품의 역사적 위치와 해석자의 역사적 위치는 역사의 전체과정 속의 지점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평획득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설정이 아니라 시대의 경향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론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차라리 그것은 역사적 경험과 해방에 대한 관심을 연결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틀 속에서 보면 <비판>은 구체적인 해석을 할 때마다 자신의 입지를 새로이 규정해야만 한다. 만약 비판이 일단 확보한 입장을 고수하는 데서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독단으로 굳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인 판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관적 조건들을 역사적인 조건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비판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판단을 객관화시키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39) Albert: Traktat über kritische Vernunft, p.139ff. 참조.

40)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p.290.

41) Benjamin: Angelus Novus, p.303.

42) F. Schlegel: Kritische Ausgabe, Bd. 2, p.103.

43) H. Mayer: “Der Kritiker und die Teilung der Gewalten”, p.72.

#### 4. 문학의 역사성과 현재성

비판과 역사 간의 긴장은 모든 문학비평 이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긴장을 부정하는 곳에서조차도 그러하다. 근대적 의미의 문학비평은 역사의식이 등장하고 규범시학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문학비평 이론은 역사적 회의주의를 역사의식 자체를 통하여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전개되어 왔다. 문학의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비판의 객관적 기준들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문학비평의 중심문제로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중심문제는 독일의 경우 바켄로더 식의 시민적 예술종교가 술회할 형제의 비판적 이론을 압도해 버린 이래로 문학비평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탈역사적인, 다시 말해서 문학의 역사적·사회적인 맥락을 간과해버리는 문학관찰 및 평가가, 그것이 제작품들의 역사적 진리내용에 대한 질문을 은폐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불릴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물음을 철저히 제기하는 그런 문학관찰과 평가만이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비판의 과정은 백년강이나 경탄해 오던 것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을 것이다. 제텍스트를 역사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그 생성의 제조조건뿐 아니라 그 현재성의 제조조건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문학의 현재성이란 문학의 존재형태를 규정하는 문학의 역사성의 한 특수한 현현방식인 것이다. 작품이 미적 차별성을 통해서, 즉 역사로부터 거리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초역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의 시간적 현존은 그것이 그때그때 새로이 이해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 한에서만 문학의 역사성, 즉 현재에 대한 규 영향이 문학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문학의 역사성은 한 텍스트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적실성을 지니는가라는 것을 중심물음으로 삼는 해석적인 문예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중요한 작품들이 현재적인 것은, 그들이 비역사적인 영원한 가치들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시대와 후일의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비판은 문학의 과거성과 현재성의 변증법을 추수행하는 가운데서만 그 기준들을 얻을 수 있다.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역사적 회의주의는 역사의식과 비판적 관심이 이론적인 매개를 통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비판적이지 못한 역사적 이해가 맹목적인 것처럼 역사적이지 못한 비판적 이해는 공허하다 할 것이다. 작품내재적 해석방법을 유일하게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치평가론은 한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에서 생겨나는 비판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며, <조화성>이라는 빈약한 기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45)</sup>

44) N. Mecklenburg: Kritisches Interpretieren, p.66ff.

45) 같은 책, p.79.

## 5. 결 론

지금까지의 고찰들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대강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절대적으로 불가치적인 해석은 실제로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해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가치적이고 기술적이라고 주장하는 분석도 단지 그 전체나 결과를 포함해서 전부를 반성하는 비판적인 태도 아래에서 이루어질 때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또 이같은 비판적 반성을 거칠 때 이해와 설명은 상호 수정·보완될 수 있다.

해석과 비판은 추상적으로는 서로 분리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긴밀히 매개된 관계에 있다. 해석은 작가를 말하며 비판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텍스트를 언급한다. 텍스트는 시대를 초월한 어떤 특정한 의미의 해석으로 고정될 수 없으며, 또 비판에 의해 임의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비판이 해석으로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해석이 거꾸로 비판을 의도하는 방식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반응을 하는 글읽기로서 <비판적 해석>은 이해의 완성을 위해 작품의 의도대로 조종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텍스트에 대해 정신적인 반작용을 가한다. <비판적 해석>은 존재하는 것 그대로를 단순히 지칭하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행위인 것이다.

이해와 가치평가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문학적 비평은 해석학적 과정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 인문과학적 이해는 무비판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파악행위로서 오히려 비판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해는 동시에 가치평가가 된다. 항상 가치평가적 관점에 의해 주도되는 해석은 비판적 판단이 동반될 때 비로소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며 거꾸로 이런 판단은 해석을 통해서만 분명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해석은 모든 비판의 기초가 된다. 가장 잘된 비판은 바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판적 해석>의 방법은 단지 심미적인 해석기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문학텍스트를 내재적으로 평가하는 심미적 비평은 반드시 이데올로기비평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귀결이라 한다면, 이데올로기비평은 또한 텍스트를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심미적 비평과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이데올로기비평은 문학텍스트가 경우에 따라서 끼칠 수도 있는 그릇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그 텍스트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문학이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의미를 지니는 그 무엇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러 점차 공감대를 상실해 가는 듯이 보인다. 민중·민족문학의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두드러지게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예술조차도 역시 이해를 받



지 못하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적 운명인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질곡이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 조건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냉철하게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판단력은 주로 교양계층 안에서만 나타나며, 따라서 계급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상승하는 하층계급이 이러한 정신적 유산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 계급을 가로질러서 이를 타도하고자 하는 경향이 관찰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는 한번 숙고해 볼만한 문제다(예컨대 “민중문학”이나 “노동문학”과의 맥락에서).

이렇게 본다면 문학비평은 아직도 <예술>과 더불어 살고자 하고 또 그것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의 엘리트적인 “유리알유희”처럼 여겨진다.<sup>46)</sup> 따라서 문학비평의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문학으로부터 정치일상으로 자리를 바꾸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바보스럽게 여겨질 것이고, 또 아직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구제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찮게 여겨질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문학비평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곳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바로 그러한 구제가 오로지 <비판>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문학에 대한 요구가 소멸되지 않는 한 <비판>은 역시 자신의 의미를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지금 바로 그런 방향에서 몹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 참 고 문 헌

Adorno, Th.W.: Ästhetische Theorie, Frankfurt/M. 1970.

Adorno, Th.W.: Vorlesungen zur Ästhetik(vervielfältigt, WS1968/69), o.O.o.J.

Albert, H.: Traktat über kritische Vernunft, Tübingen 1968.

Apel, K.O.: “Szientistik, Hermeneutik, Ideologiekritik”, Wiener Jb.f. Philosophie 1 (1968), pp. 15-45.

Apel, K.O.: “Die Entfaltung der <sprachanalytischen> Philosophie und das Problem der <Geisteswissenschaften>”, Philos. Jb. 72(1964/65), pp. 239-289.

Benjamin, W.: Angelus Novus, Frankfurt/M. 1966.

Benjamin, W.: “Literaturgeschichte und Literaturwissenschaft”, in: <Angelus Nevus>, pp. 450-456.

Bollnow, O.F.: Die Methode der Geisteswissenschaften, Mainz 1950.

Fetzer, G.: Wertungsprobleme in der Trivialliteraturforschung, München 1980.

46) 같은 책, p.177.

- Gadamer, H.-G.: Wahrheit und Methode, Tübingen 1965<sup>2</sup>.
- Gadamer, H.-G.: "Die Universalität des hermeneutischen Problems", Philos. Jb. 73(1964), pp. 215-225.
- Gansberg, M.L./Völker, P.G.: Methodenkritik der Germanistik, Stuttgart 1970.
- Gansberg, M.L.: "Zu einigen populären Vorurteilen gegen materialistische Literaturwissenschaft", in: <Methodenkritik der Germanistik>, pp. 7-39.
- Gebhardt, Paul: "Literarische Kritik", in: <Erkenntnis der Literatur>, Hg. von Dietrich Harth/P. Gebhardt, Stuttgart 1982, p. 92.
- Habermas, J.: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M. 1968.
- Herder, J.G.: Sämtliche Werke, Bd. 5(Hg. v. B. Suphan, Berlin 1877ff.).
- Hirsch, E.D.: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1967.
- Hultberg, H.: Semantisk litteraturbetragtning, Kopenhagen 1966.
- Leibfried, E.: Kritische Wissenschaft vom Text, Stuttgart 1970.
- Mayer, H.: "Der Kritiker und die Teilung der Gewalten", in: Von Paris bis Warschau, pp. 66-73.
- Mecklenburg, N.: Kritisches Interpretieren. Untersuchungen zur Theorie der Literaturkritik, München 1972.
- Mecklenburg, N./Müller, H.: Erkenntnisinteresse und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Berlin/Köln/Mainz 1974.
- Mecklenburg, N.: Literarische Wertung, Tübingen 1977.
- Ritter, J.: "Die Aufgabe der Geisteswissenschaft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n: Jahresschrift 1961 der 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Westfälischen Wilhelms-Universität zu Münster, Münster 1961, pp. 11-39.
- Schlegel, F.: Kritische Ausgabe, Bd. 2(Hg. v. E. Behler, Paderborn 1958ff.).
- Schulte-Sasse, J.: Literarische Wertung, Stuttgart 1976<sup>2</sup>.
- Seiffert, H.: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stheorie, Bd. 2, München 1970.
- Staiger, E.: Die Kunst der Interpretation, Zürich 1957.
- Weimann, R.: "New Criticism" und die Entwicklung bürgerlicher Literaturwissenschaft, Halle 1962.
- Weimann, R.: Literaturgeschichte und Mythologie, Frankfurt/M. 1977.
- 김명환 외(역):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서울: 창작사 1986.
- 여홍상/김영희(역): 프레드릭 제임슨,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4.

윤지관(역) : 쿤네 | 입쉬 / 포케마, 현대문학이론의 조류, 서울 : 학민사 1983.

이건우(역) : 피에르 지마, 문학텍스트의 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3.

이경순(역) : 데이빗 호이, 해석학과 문학비평,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8.

허창운(저) :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출판부 1987<sup>2</sup>.

\_\_\_\_\_ (편저) : 현대문예학의 이해,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89.

**<Zusammenfassung>****Eine kritische Studie über die Theorie der Literaturkritik****Tschang-Un Hur**

Diese Abhandlung versucht einen kritischen Überblick über die Problematik der Theorie der Literaturkritik im Hinblick auf ihre Beziehung zur Literaturwissenschaft zu geben, indem sie sich mit dem zentralen Problem der literarischen Wertung sowohl geschichtlich als auch soziologisch auseinandersetzt.

Sie beschäftigt sich daher zuerst mit der Entwicklungsgeschichte der Literaturkritik im Sinne der kritischen Praxis der literarischen Wertung, und dann bemüht sich um eine sozialgeschichtliche Rechtfertigung der praktischen Rezeption der <Kritischen Theorie>, die sich in der klassenbedingten Literaturkritik auch den effizienten Bezugsrahmen darstellt.

Daraus ergibt sich notwendigerweise die Forderung an die Literaturkritik, daß die immanente ästhetische Kritik der literarischen Texte auf die Ideologiekritik hin transzendiert werden soll. Gerade zu diesem Zweck will diese Arbeit einen Beitrag leisten, und zwar zur Synthese von der gezwungenermaßen selbständig gewordenen Literaturwissenschaft einerseits und der als Buchkritik zusammengeschrumpften Literaturkritik andererseits.

Zumal da Literaturwissenschaft und Literaturkritik ursprünglich miteinander eine Einheit bildeten, die sich jedoch im Laufe des 19. Jahrhunderts in Deutschland gesellschaftsbedingt aufgelöst wurde, soll sich der Versuch sogar im Sinne der Begriffsrettung immerhin lohnen, die beiden getrennt existierenden Bereiche organisatorisch in ein System einzufügen und inhaltlich neu zu bestimmen.

Hierzu werden im groben Umriß Grundfragen der Interpretation und Poetik im Lichte der modernen Wissenschaftstheorie neu angeschnitten. Die Intention dieser Studie, methodenkritisches Bewußtsein zu wecken und das Urteil darüber zu schärfen, was in der Literatur noch gegenwärtig wirksam und relevant sein soll oder nicht, kann dadurch noch klarer im methodologischen Zusammenhang hervorgehoben werden.